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기원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고르키아스는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당시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고르키아스에게 말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를 묻는다. 여러 차례 문답 과정에서 고르키아스는 '말재주로 인한 설득력은 매우 탁월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말의 설득력은 말에 담긴 진실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다. 설득력은 듣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게 만들 때 생기는 것이니, 언어가 꼭 진실을 위한 방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고 믿게 하는 것이 말을 하는 이유라고 역설한다. '말하는 기술과 요령'이 뛰어나다면 그걸로 충분하며, 참된 지식(에피스테메)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의든 부정의든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믿게 하는 것이 말하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말하기의 최고 목적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며, 대화라고 하는 상호 행위는 실상 소통을

독백의 어법과 결별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배'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다. 이런 대화법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확증을 지식 또는 진실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을 혼동하는 무지의 동굴에서 독백의 어법은 확고해진다. 무지의 횡포를 잘 아는 소크라테스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알팍한 말재주로는 아는 것이 없는 자가 자신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불행은 참된 지식과 진실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언어 행위는 참된 지식을 냉소하고 무효화하며, 무지에서 나온 억측과 편향적 의견으로 무지의 악순환을 고착시킨다. 여기에서 특히 공격 언어 행위가 중요한 윤리적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어떻게 내포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저 이해관계에 따른 맹종의 도구적 언사는 기껏해야 아침 즉 '포퓰리즘'이며 선동이다.

우리의 언어 행위는 독백적 관계 또는 대화적 관계의 시작점이다. 고르키아스가 말하는 사람의 지배력을 위한 도구적 언어 행위는 겉은 대화이지만 실제로는 독백이다. 독백에는 '어떻게'와 '왜'라는 물음이 없고, 일방적인 답과 분리와 부정의 단어들만 빼곡하며, 무엇보다 독백에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즉 서로 다른 것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독백의 특징이다.

그러나 삶의 진리는 한 개인만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하일 바흐친(1895~1975)은 말한다. 삶이 요구하는 참된 가치를 생성하는 것은 늘 공동 생산 작업이며, 공유의 과정과 결과라는 의미다.

바흐친은 독백주의와 대화주의를 '나'와 타자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독백의 주체는 변화를 거부하는 완결된 존재이다. 독백은 상대방의 고유한 타자성을 부정함으로써 하나의 시선과 하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대화주의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대화 행위를 공존의 의미와 가치가 생성되고 확인되는 성찰의 공간과 실천 행위로 이해한다. 따라서 타자성의 고유함을 수용하며 타인의 생각과 이해에 반응하고 통제 대신 상호적 관계를 추구한다. 바흐친이 "타자에게, 타자를 통해서, 그리고 타자의 도움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의해서만 나 자신이 된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이 독백주의의 횡포로 침윤되어 있는가.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과 전문가는 사람들 또한 그 유려한 말솜씨와 빈틈없는 논리와 흡입을 데 없이 예리한 식견을 발판으로 독백의 어법을 전고하게 한다.

이 지독한 독백주의 세상에서 당연하게 우리는 안이 되고,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진 타인들은 밖이 된다. 지배 욕망과 독백주의로 뭉친 안에서 내다보는 밖은 늘 위험하고 혐오스럽고 통제되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안으로부터 규정된 모든 '바깥'이 사라진 곳에는 고립과 의미의 해체와 증오와 원한의 반복이 있을 뿐, 무엇이 더 남을 것인가. 세태에는 부디 좀 더 대화적 상상력과 대화주의가 일상과 다양한 관계 방식에서 그리고 정치라는 긴 독백의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꿈꾸는 2040



하정호  
위안연구원 이사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찾아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감독판까지 합쳐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내부자들'에서 언론사 주필이 정치인에게 한 대사이다. 쉽게 끊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을 꼬집는 말이다. 그 다음 해에 나환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흥내내 말했다가 큰코다치기도 했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냐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걸 어

개돼지를 위한 정치

떻게 잡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리만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그날 기자들 앞에서 나환욱 기획관이 했다는 얘기들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인물이었다. 당시에는 이 발언으로 파면되었지만 소정 심사를 거쳐 지금은 부이사관급(3급)으로 강등만 당한 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언론은 종종 후진적인 정치를 시민들의 냄비근성 탓으로 돌린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열심히 떠들다가도 결국 선거에서 뽑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명 시민들에게 그런 냄비근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탈버전 정치를 모두 냄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냄비는 저절로 데워지지 않는다. 군불을 땀 누군가가 있게 마련이다. 정치든 언론이든. 그래서 또 정치가 언론을 탓하는 것일까? 누굴 탓하려 들면 그 연결고리는 뻥뻥 뚫린다. 나환웅 정치는 시민 탓이고, 시민이 그 모양인 건 언론 탓이며, 언론이 그렇게 썩은 것은 또 이를 악용하는 정치 탓이다. 하잘것없는 이 순환 논증의 고리를 끊는 법은 간단하다.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책임질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2016년 세월호 참사 2

주기를 맞아 4·16 교육 체제의 도입을 선언한 때였다. 교과서 자율 발행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휴가제, 선거권 만18세 하향 조정, 교대·사범대 통폐합 또는 교대 단일 대학으로의 통합,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고교 완전 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 폐지 후 자격 고사제 전환, 대입추첨제 전행 도입 등이 모두 그 선언에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

당시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14명의 교육감 대부분은 아직 현직에 있다.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처럼 혁신 학교를 4·16 교육 체제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14명의 교육감 모두 그 약속을 잊은 것 같다. 지난 10일 발표한 이재정 후보의 교육 공약도 4·16 교육 체제에는 훨씬 못 미친다. 세월호 10주기가 될 때에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말할 지도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게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었다. 4·16 교육 체제 공동선언을 지켜라. 아직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커다란 아픔을 겪고도 그 만큼 성숙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이웃의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선에 출 서서 교육감 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면, 말 못하는 대통령 후보의 입이라도 열어야 할 일이다. 당선들이 내뱉은 말, 지켜라.

기고

고1 정당 가입과 독일의 정치 교육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새해 들어 국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했다. 어르신들은 한창 공부해야 할 때 무슨 정치 활동이나고 격정도 하실 것 같다. 민감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각자 살길을 찾는 개별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 먹고 살기에 더 바쁘다는 것이다.

정치 문제도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도한 정치 참여보다도, 오히려 정치나 사회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더 걱정인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정치적 무관심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좌우 이념 갈등이 극심해질수록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정치 참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유럽의 나치즘이나 종교 극단주의, 폭력성 등에 젊은이들이 쉽게 빠지는 현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곧 학교에서 정치활동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현실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놓였다.

독일에는 독일연방 정치교육원이라는 조직이 있다. 1960년대 중반~70년대 초반 서독은 현재 한국처럼 좌우 대립이 극심했고 한쪽에선 극우파가 신나치 운동을 펼쳤고, 다른 한쪽에선 월남전에 반대하는 좌파 학생 운동이 거셴다.

한독정치교육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베른트 휘방거 정치교육원 부원장에 의하면 "당시 극우와 극좌를 제재하기 위해 각 주 단위에서 '반급진주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어긴 극좌·극우 세력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교사·교수 모두 공무원인 독일에서 이 조례의 파장은 컸습니다. 현직에 있던 공무원은 파면됐고, 신규 취업이 금지됐습니다. 반발도 컸지만 이런 조건 수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에는 모든 정당의 합의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3대 정치 교육 원칙도 마련됐다. 그는 "독일 통일 이후에도 정치 교육은 동·서독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이념을 배제

한 정치 교육이 결국 독일 통일을 앞당겼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해 불온함을 어찌내고, 올바른 정치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민주 시민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바탕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은 첫째, '강압(교화) 금지'로 특정 견해를 주입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논쟁성에 대한 요청'으로 다양한 관점들을 논쟁적으로 다뤄서 충분히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학생 중심'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정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심를 다가고 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같은 준비 조직을 마련해서, 그동안 교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계기 교육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시급히 고도화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에서도 참정권의 나이를 낮추는 작업과 함께 교육의 영역에서도 건강한 민주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제도의 입법과 예산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

社說

실종자 수색에 모든 장비·인력 총동원해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지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건물에 위험스레 매달려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현장 작업자는 모두 여섯 명이며, 이 가운데 60대 남성 한 명은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다. 이후 수색은 인명구조견·내시경·드론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견된 지하 1층과 지상층 일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8층까지 모든 층을 한 번 더 탐색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 당국은 아울러 건설 중장비가 이동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위에 쌓인 콘크리트 등 잔해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건물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높이 140m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도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 크레인을 분해할 해체용 크레인을 조립하던 중 안전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면서 해체 착수 시점이 16일에서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건물 고층부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 실종자 가족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대 안전에 소홀히 하는 등 책임을 도의시키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방 구조대와 현장 작업자들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수색과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표 장사'만 하지 말고 연금개혁 나서라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

하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모를 리는 없는 데도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말할 것도 없이 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

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일하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액에 비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비해 연금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본따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 연금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 비전 제시는 청년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최소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 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은 눈앞의 '표 장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연금 개혁에 대한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기독교 역사에서 전남 여수는 순교 정신이 깃든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고귀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1902~1950) 목사는 여순사건 때 폭도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원수마저 양아들로 삼았다. 이후 한센병 환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총살로 순교했다.

'제2의 유관순 열사'라 불리는 윤형숙

전도사(1900~1950)도

한 여수가 배출한 신앙인이자 그녀는 광주 수피아여학교 재학 중 3·1

운동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왼팔을 잃었다. 옥고를 마칠 즈음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실명에까지 이른 다. 출옥 후 고향으로 내려와 여수제일교회 전도사로 봉사하던 중 역시 6·25 때 공산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 최초 목사였던 이기풍(1868~1942) 선교사의 발자취도 여수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금오도 우학리 교회는 이 목사가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교회다. 제주도 선교를 마

치고 마지막으로 부임한 이곳에서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붙잡혀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한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 특히 여수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 대형 교회인 은파교회(예장통합)가 세습 금지법을 어기고 부자(父子) 세습(世襲)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법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 등은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파교회는 교회 안 정을 이유로 올해 말 퇴임 예정인 아버지 목사의 뒤를 이어 아들 목사를 청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명한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본인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기득권과 지위, 돈을 대물림하기 위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들에게 손양원-이기풍 목사와 윤형숙 전도사의 순교 정신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